

# “시 승인 없이 주관운영사 변경 가능한가?”

이국 전주시의원,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천서영 시의원, “전주시 보조금, 특정한 입지 위한 수단 전략” 질타  
장병익 시의원, “신규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과 같은 전철 밟지 않아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가졌다. 먼저,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은 총 사업비 1,106억원의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주)한백, (유)한백, 성우건설(주), (주)에코비트위더 총 4개회사가 공동운영사로 있었다. 지금까지 (주)에코비트위더가 주관운영사로 있었지만, 지난 10월 주관운영사 변경 설명회를 통해 성우건설로 주관운영사가 변경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따르면, 1985년에 설립된 성우건설은 2017년 당시 9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했으나, 저가 추수로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2018년 부도가 났었던 회사로 현



이국 의원, 천서영 의원, 장병익 의원

재 눈에 띄는 사업실적도 없고 주요 실적도 산업환경설비, 건축, 토목, 조경 등으로 주관 운영 경험이 전문한 곳이라고 했다. 이국 의원은 1,1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에 전주시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주관운영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직원들의 고용승계조치 보장하지 않고 이루어진 상황과 성우건설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천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통해 매립장 주변 2km 이내 주민 720여 가구에 머그컵 및 참치 세트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보조금 지급을 위해 협의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 목적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행사 물품 지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한 물품은 주민들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물품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상품 제공의 성격이 짙으며, 특히 함께 제공한 머그컵의 경우 해당 단체 위원장의 개인 이름이 박혀 있어, 전주시 보조금이 특정한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형태의 상품 지급이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사업의 목표와 효과에 정합하였는지, 전주시의 예산이 특정한 입지 및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닌지 답변을 요청했다.

장병익 의원(효자·완산·중화산1)은 “2016년 준공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의 증설에 대한 검토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도에 이루어졌다. 준공 직후부터 하루 처리 가능 용량보다 많은 양의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백히 시설 설계를 위한 폐기물발생량 예측의 실패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종합 리사이클링타운의 시설규모 산정은 2009년 진행된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타당성 조사에서는 전주시 미래 인구를 21년 기준 85만명으로 추정하는 등 터무니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 행정적·재정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전주시민의 몫인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에 대해 “현 소각장 내구연한 내 신규 소각장 건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종합리사이클링타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에 기반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김욱기 기자

## 주요 정보 한눈에 ‘시설지도’ 제작

전주시시설공단, 시설지도 디지털센터 구축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각 시설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지도’를 제작했다. 공단은 각 시설 세부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설지도 디지털센터’를 구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실내의 체육시설과 장사시설 총 21개 시설의 세부 정보를 시설지도 디지털센터에 집적했다. 디지털센터에서 각 시설의 준공 시기와 면적, 층수, 수용 규모 등 총괄적인 현황은 물론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장애인 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관람석, 주차장 현황과 위치 등 세부적인 정보들을 설계도면 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국내외 각종 행사나 대회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시설 현황 자료를 구축했다. 주최 측에서 화장실과 매표, 장애인 시설 등 행사 또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등의 관련 정보들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각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체



1층 화장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산체육관 시설지도. <사진=전주시시설공단 제공>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각 시설별 DB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현황 자료의 최신화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설지도는 행사 관계자나 공단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를 제작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진행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와 연계해 이번 김장문화축제를 계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하나센터와 함께 전주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함께 맛있는 김장을 버무렸다. 이날 담근 김치는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부 전달됐으며, 행사장을 찾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작년 김장 행사 김치를 받아서 올 해는 직접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눔의 큰 기쁨을 느끼게 됐다. 특히 올해는 김장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김장 준비에 큰 어려움을 느꼈는데 부담을 덜게 돼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내년 노인일자리아사업 1만4197명 모집

전주시가 내년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28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아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만4197명을 각 유형별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공형 노인사회활동(11개월)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아(10개월)의 경우 오는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35개 동 주민센터와 시니어클럽, 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아사업 수행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내년도 노인일자리아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형 일자리아 9962명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아는 3009명 등 총 1만4197명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참여자는 내년 1월 중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활동 참여 희망자는 각 수행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참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 ‘전주김장문화축제’ 성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지역 농산물 활용 김장 문화 계승

전주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맛과 멋을 버무린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를 슬로건으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맛의 고장 전주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맛갈스러운 김장을 버무리는 축제로 꾸며졌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주지역 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김장 나눔 행사 △220여 가족이 참여한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270여 가족이 배추와 양념을 현장에서 수령해 집에서 김장을 담가 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올해 축제를 통해 총 18톤의 김치가 판매됐다. 특히 축제 이틀날에는 차복순 명창과 김광오 명창의 소리 한마당이 펼쳐져 맛의 도시 전주에 소리로 멋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역사관 우

리 놀이터 마두달(아외마당)을 옮겨온 듯한 전통놀이 체험장에서는 율놀이와 투호, 제기차기가 펼쳐지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문화 한마당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축제 일주일 전 전주푸드송천직매장 마당에서는 전주지역 농민이 생산한 양파와 무,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에 필요한 김장재료를 판매하는 김장직거래장터도 운영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답게 김장담그기는 물론, 전통놀이 체험과 전통 공연 등이 더해지면서 함께 놀고 즐기는 새로운 김장 문화를 꽃 피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장은 “전주김장문화축제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도동예 자리 잡은 전주김치산업관을 통해 전주의 김장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서울국제식품산업전’서 홍보부스 운영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오병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이하 산업전)’에서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지역 농생명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산업전에서는 씨엔알코스메틱스(주)(덕진구 만성동 소재)와 다국적기업인 ‘이노패션’(서울시 성동구 소재)이 전주쌀발효물(전주모주)이 함유된 화장품(마스크팩)을 포함해 약 10



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실적을 했다. 씨엔알코스메틱스(주)는 ‘어머니가 술을 자주 먹던 아들을 격려하여 막걸리에 한약재를 넣고 끓여서 만든 곡주’라는 ‘전주모주(母酒)’의 스토리를

마케팅에 부스를 찾은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전주시 농생명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전주지역 농생명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공을 들였다. 오병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이번 산업전에서 지역 농생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지역의 농생명 관련 유망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서 기업지원사업의 성과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